

생보사, 제3보험 눈독... “데이터 활용으로 경쟁력 높여야”

손보 독점시장에 생보업계 도전장
질병·상해 등 신상품 출시 잇따라

보험개발원 “데이터 기반 개발 필수
관련 조직·인력 전략적 투자해야”

생명보험사들이 제3보험 시장을 정
조준하고 있다. 생보업계의 질병·간병
등 제3보험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해 데
이터 활용도를 높여 가격·상품 경쟁력
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연초부터 건강보험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사망보장 수요 감소에 따라 질병
·간병 중심의 제3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다.

생보업계는 지난 1월 1일 ABL생명
을 시작으로 한화생명과 DB생명이 건
강보험을 출시했다. ABL생명은 유병
자 특화 건강종합보험 2종을 출시했고
한화생명은 뇌·심장질환 보장범위를



Chat GPT가 생성한 생보사 제3보험 시장 영향력 확대 이미지.

확대한 건강보험을 선보였다. DB생명
은 업계 최초로 주요 7대 질병을 보장하
면서 보장받는 횟수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회계제도가 바
뀌면서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을 중점적
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올해도 전사적

으로 건강보험 판매를 전략으로 추진하
고 있다”고 밝혔다.

생보업계가 연초부터 건강보험 출시
에 나선 것은 제3보험 시장 영향력 확보
의 일환이다. 제3보험은 질병·상해·암
등 생·손보사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상품
이다.

본래 제3보험은 손해보험사의 영역
으로 평가 받는다. 손보사들의 제3보험
시장 점유율은 약 70% 수준이다. 최근
엔 보험 수요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국
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생·손
보 간의 제3보험 시장 확대 및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제3보험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얻기
위해선 데이터 기반의 신속하고 효율적
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
다. 최근 생명보험 데이터 관리체계 개
편으로 향후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 분석이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생명보험의 르
네상스, 데이터로 다시 시작하다’ 보고
서에 따르면 생보 산업은 데이터에서 신
규 성장동력을 찾자 30여년 만에 데이
터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결정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생명보험 데이
터 관리체계 개편으로 향후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다”며 “생명보험 산업이 제3보험 시장

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데
이터 분석에 기반한 상품개발과 의사결
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개편에 따른 활용방안으로는
▲가격경쟁력 제고 ▲상품경쟁력 강화
▲위험관리 등이 꼽힌다. 담보별 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가격을 산출함으
로써 제3보험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제고한다.

건강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준별
위험 세분화를 통해 상품 판매 경쟁력
을 확보한다. 아울러 손해율 분석 결과
를 상품·마케팅전략 수립 시 활용해 위
험관리 효과를 얻는다.

보험개발원은 “세분화된 데이터 집
적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생보사는 이
를 활용해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생산 조직
부터 활용 조직까지 전사적인 차원에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조직 및 인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
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대부업 명칭 변경, 불법사금융 척결이 먼저”

우수업체 ‘생활금융’ 사용 가능해져
명칭 변경 골자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불법사금융 척결 없인 무의미 지적

앞으로 우수 대부업체에 한해 ‘생활
금융’이란 명칭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
이다. 그간 대부업권은 불법사금융과
선을 긋기 위해 명칭 변경을 주장했다.
명칭 변경이 대부업체 반대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한편 시장 재정비가
우선이란 지적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은 우수 대부업체에게 ‘생활금융’이란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앞
으로 우수 대부업체를 지정하고 명칭
사용 허가와 함께 대부업 요건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부업계는 환영
하는 분위기다.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을 혼동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
문이다. 지난해 3월 임기를 시작한 정성
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취임사에서
대부업권 명칭 변경의 중요성을 시사했
다. 대부업이 ‘불법사금융’이란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계 또한 부정적 인식을 두고
시장 위축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대부업자 승인 요건 상향 조정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병행하면 명칭 변경에
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의
견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는 71만
4000명이다. 연간 1만4000명 감소했
다. 같은 기간 대출 규모는 3000억원 줄
어든 1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정최고금
리(연 20%) 등 대부업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명칭이 차
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고 본다”라며
“명칭과 함께 불법사금융과 확실하게
구분 짓는 수단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대부업권이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
지만 여전히 금융권과 온도차는 뚜렷하
다. 지난해 11월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주요
대부업체 대표와 금융당국, 학계 관계
자가 참석했다. 해당 자리에서 업권 활
성화 방안과 함께 대부업 명칭 변경을
논의했지만, 명칭 변경안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업계는 명칭 변경에 속도를 높
이고 싶었던 반면 금융당국은 불법사

금융 척결을 선행해야 한다고 분석했
다.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불법사금융
업자가 똑같은 간판을 걸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 우려다. 금융권 또한 불법
사금융 척결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무
게가 실린다.

실제로 대부업계가 쇄신을 위해 적잖
은 공을 들였지만 불법사금융이란 인식
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대부업체
20곳은 2436억원 규모의 채권소각을 단
행했다.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취
약자주 1만6996명의 채무 부담을 완화
했다.

지난해 대부금융협회가 1028명을 대
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
업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
히 상당수의 차주는 대부업체와 불법사
금융을 혼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도 서
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수대부업체에
차입을 허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법사금융 때문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명칭 변경 이
후에도 불법사금융이 이뤄진다면 유의
미한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 관망세 심화

12월 아파트값 0.09% 상승 그쳐
SK북한산시티, 3000만원 하락

지난 12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달보다 축소됐다. 지난해 8월 최고 상
승률을 기록한 후 계속해서 내림세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
난달 전국 주택(아파트, 연립·단독주
택) 매매가격지수는 -0.07%로 전달
(0.01%) 대비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서울(0.20%→0.08%) 역시 11월
(0.20%)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된
수치다. 8월(0.83%)에 2019년 12월
(0.86%)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상
승폭이 줄어 들고 있다.

권역별로는 강북에서 용산구
(0.22%)는 도원·신계동 중소형 규모,
중구(0.15%)는 신당·중림동, 마포구
(0.15%)는 아현·염리동 주요단지, 광진
구(0.14%)는 정주여건 양호한 자양·광
장동, 종로구(0.13%)는 무악동·명륜2
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에서 구로구(-0.09%)는 고척·

구로동 구축 단지, 관악구(-0.06%)는
봉천·신림동 위주로 하락했다. 반면 강
남구(0.24%)는 개포·논현동 주요단지,
서초구(0.21%)는 잠원·반포동 재건축
추진단지, 영등포구(0.16%)는 당산·신
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12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달 대비
0.09% 오르는 것에 그쳤다. 2018년 9월
(1.84%) 이후 71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
록한 8월(1.27%), 9월(0.79%)보다 상승
률이 크게 내렸다. 전달인 11월
(0.26%)과 비교해도 상승 폭은 반토막
이 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
르면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SK북한
산시티’는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6억
3000만원에 거래됐다. 전달 매매가격
(6억6000만원) 대비 3000만원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
권 내 정주여건 양호 단지 등을 중심으
로 국지적인 상승세는 관측되고 있다”
며 “다만 계절적 비수기와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시장 관망 추이가 확대됐다”
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동백전 고객 전용 비상금 대출 ‘동백론’

부산은행, 고객 요청 즉시 대출지원
최저 연 5.47%, 최대 300만원까지

BNK부산은행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상금 동백론’을 출시했다고 15일 밝
혔다.

‘비상금 동백론’은 부산지역화폐동백
전 앱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월 말 사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고객을 선정하고,
고객 요청 시 즉시 대출을 지원하는 상
품이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고객도 동
백전을 이용 중이라면 긴급소액 대출이
필요할 때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이며,
동백전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포
함해 최저 연 5.47%(15일 기준) 수준까
지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상환방식은 일시상환, 할부상
환, 마이너스대출 등의 방식으로 선택
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상환방식에
따라 최대 6개월부터 최장 3년까지다.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할 경
우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 신청도 가능
하다.

상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
산은행 모바일뱅킹 앱 또는 전 영업점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하나은행, 최고 年 7% ‘달달 하나 적금’

급여이체 고객에 10만좌 한정 판매

하나은행이 새해를 맞아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달마다 혜택을 드
리는 ‘달달 하나 적금’을 출시한다고 15
일 밝혔다.

달달 하나 적금은 하나은행으로 급여
를 이체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매달 이
벤트를 통한 풍성한 혜택과 최고 연 7%

금리를 제공하는 ‘하나원큐’ 전용 적금
상품이다. 오는 6월말까지 10만좌 한정
판매 예정인 달달 하나 적금의 가입금
액은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
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
대금리 최대 연 5.0%를 더해 최고 연 7.
0%이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
연 1.0% ▲하나카드 결제 실적 연 0.5%

▲첫거래 감소 금리 연 1.5% ▲달달 하
나 금리 연 1.0~2.0%이다.

최근 1년간 하나은행에서 예·적금 가
입 이력이 없는 손님들에게는 ‘첫거래
감사’ 금리가 제공되며, 매월 1회 이벤
트에 참여하면 랜덤 방식으로 제공하는
‘달달 하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나
은행을 주거래로 이용하는 손님들께 도
움이 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